

“울산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역 거듭날 것”

지방시대 울산 이상 선포식
위원회 20명 위촉과 선언문 등
비전·4대 목표·5대 추진전략 구성



울산시 민선8기 시정 비전 디자인

울산시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 울산 이상(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학,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업·금융·언론·방송·문화·예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축하공연, 지방시대 출범 영상 시청,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시대 울산 선언문 낭독 및 전달, 울산시 지방시대 이상과 전략 설

명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으로 위원들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지방시대 울산 선언문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량 결집,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문화관광도시 및 탄소중립 친환경도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세계적인 대

학 교육 기반 구축과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한 울산시 지방시대 이상과 전략은 울산시 비전, 4대 목표, 5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울산시의 비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로 선정됐다.

4대 목표는 ▲울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 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

기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다.

5대 추진전략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자치 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 체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기반(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이다.

김두겸 시장은 “산업화의 역군임을 자처해온 우리 울산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울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중기부-부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기연구원은 18일 오후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부산 중소·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부산 중소·벤처기업 전망, 성장지원 전략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공유 ▲부산 중소·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연구 협력 ▲부산 조선포양 ICT 융합 중소·벤처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모색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보성군, 정비사업비 358억 확보 별교 봉림지구 침수 해소 나선다

행안부 주관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129억 절감

보성군은 별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별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별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별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지난 17일 오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령군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보유

경북도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지난 17일 오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5월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고,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전남도,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 5곳 소개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등



가을철 견고 싶은 길 중 ‘대상’을 받은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전남도

전라남도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고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을 주제로 시군 공모를 추진, 경관·산림·등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단풍·향기 등 가을철 정취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숲길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에 영예를 안았고, 영암 백룡산 숲길과 곡성 대항강 둘레길에 각각 최우수 숲길에, 장성 편백나무 숲 트레킹길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사색의 숲길에 우수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유마사 단풍숲길 4km는 섬진 7지맥의 한 봉우리로 백아산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동북천을 앞에 두고 멈춰선 곳이다. 우암담의 담수와 함께 삼면이

푸른 물줄기로 둘러싸여 멀리 무등산, 조계산, 백아산을 조망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계절별로 5개 소씩 견고 싶은 숲길 20개소를 발굴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숲길로 조성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본궤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설명회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18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사하구 제2청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 시행 조건, 시설 규모, 요구사항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 고시를 위해 시는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민간투자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의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고시와 올해 8월 민간투자자협의회 승인에 이어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작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본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공영흡소평 대구·경북 코칭상담 참여자 모집

공영흡소평이 오는 11월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 상담회를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이번 상담회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흡소평 MD 등의 전문 코칭을 통해 지역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판매까지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달 광주·전남에 이어 1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펼친다.

/김승호 기자

울산시 지방채 1300억 일시 상환

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1700억원은 2022년(72억원), 2023년 상반기(98억원)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양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여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영양군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는 공영(지하)주차장 및 생태공원, 맞이방 등을 조성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